

北韓 高等教育 研究院의 실태

—北韓의 高等教育(完)—

金 炯 燦

(美 西部워싱턴州立大 教育學科)

北韓의 高等教育

1. 北韓 高等教育 제도의 歷史的 變遷 과정
2. 北韓 高等教育 기관의 種類
3. 北韓 高等教育 과정 및 學事 운영
4. 北韓 高等教育 研究院의 실태

1. 序 言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여도 졸업생은 학위를 받지 못한다. 대학 졸업생들은 학위 대신 세 가지 종류의 자격증 중 하나를 수여받게 되는데 사회과학이나 인문 및 예술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들은 전문가라는 증서를 받고, 자연과학과 기술 방면을 전공한 사람들은 기술자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육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교원증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북한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직분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계속 연구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북한에서는 세 가지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학사, 준박사 및 박사학위로 구분되어 있다. 학사학위는 대학교나 연구원에서

일정한 교육과 연구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수여되며, 준박사와 박사는 대학교나 박사원에서 일정한 교육과 연구 과정을 끝마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남한이나 미국의 고등교육과는 꼭 대조적인 것으로 남한이나 미국 또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학위나 직위를 각 대학이 부여하는 것에 비하여 북한은 학위 및 학직 부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 학위 및 학직 위원회는 본래 1948년 10월 26일에 조직되었으며, 그후 '내각 결정 제109호'에 의하여 1953년 7월 1일에 다시 조직되었는데 이 결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제출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학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박사원·연구원 또는 대학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끝마친 후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과학·문학·사회학 또는 예술 등 많은 분야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결과 국가가 부여하는 명예 학위가 있다.

2. 大學과 大學校의 學位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133호'는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 내에 3년제 연구 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난 1949년 4월 6일에 교육성이 기관령 제3호로 연구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면, 교육성이 지적하는 고등교육 기관에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더 발달된 교육을 위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고, 1949년말에는 5개의 연구 기관이 설치되었다. 이 5개의 연구 기관을 둔 고등교육 기관은 김일성대학교, 김책공업대학(평양공업대학의 前身, '90년 2월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북한의 로동당 일꾼들은 이 대학을 김책종합대학이라고 명칭하였다), 홍남공업대학, 평양의과대학, 그리고 원산농업대학 등이었는데 북한이 1948년 9월 1일 현재 12개의 대학 및 대학교가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5개의 연구 기관은 적은 수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 5개의 연구 기관에서 모두 72명의 학생이 연구 활동을 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이 연구 기관들의 활동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전쟁 후 1954년에 이 연구 기관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하나의 연구 기관이 첨가되었다. 이 시기에 연구 기관을 설치한 고등교육 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책공업대학, 화학공업대학(함흥화학공업대학의 前身), 원산농업대학, 평양건축공업대학, 그리고 평양사범대학 등이었다. 이들 연구 기관은 1954년 9월 현재 180명의 연구생을 확보하고 있었다. 6·25 전쟁 전에 연구 기관을 보유하고 있던 평양의과대학은 1954년에는 그 학교 내에 있는 연구 기관을 밝히지 않았으나, 1955년 11월을 기하여 연구 기관이 재운영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다른 3개의 연구 기관이 각각 인민경제대학, 축산수의대학과 함흥의과대학에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기관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비하여 1955년의 학생 수는 8명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미미한 수의 증가는 아마도 북한 정부가 많은 연구생들을 모집한 과학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연구 기관들의 운영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1959년까지는 꽤 작은 규모였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연구 기관 10개의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평양사범대학은 1957년도에 교육·심리학·조선사교수법·지리교수법·조선문학교수법·조선어교수법·물리교수법·화학교수법·생물교수법 과정에 각각 한 사람씩 모두 9명의 연구생을 입학시켰다. 북한 당국이 소규모의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는 북한 당국이 정권을 잡은 시기부터 1955년 11월까지 85명의 학사와 10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가 1954년 7월부터 1955년 11월 사이에 학위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10명은 정규 과정을 통하여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이는 북한이 1961년이 되어서야 박사원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10명의 박사 중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사람은 2명 뿐이다.

북한은 현재 대학과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 기관에 등록하고 있는 학생이나 진문 분야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분적인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1958~1959년에 북한의 대학교 및 대학의 연구 기관들이 신입생을 수용한 통계 자료는 위의 <표 1>과 같다. 1964년에는 북한에 18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연구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966~1967년에는 21개로 증가하였다. 1967년 현재 21개의 연구 기관을 운영하는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은 김일성대학교, 김책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평양건축공업대학, 평양수송대학, 함흥수리대학, 신의주경공업대학, 원산해산대학, 평양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 청진의과대학, 사리원농업대학, 혜산공업대학, 강계농업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음악대학, 평양영화연극대학, 평양사범대학, 사리원사범대학, 그리고 순천사범대학 등이다. 동시에 6개의 박사원을 김일성대학교, 김책공업대학, 평양건축공업대학, 평양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 그리고 평양사범대학(현재 김형직사범대학) 등에 설치하고 있다.

〈표 1〉 1958~1959 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 북한 대학 및 대학교 연구 기관

대 학 (교)	전 문 분 야
김일성대학교	역학, 분석수학, 실험물리, 무기화학, 유물사관, 자연지리, 경제지리, 척추동물, 생물학, 조선로동당 투쟁사, 맑스·레닌주의 원리, 조선철학사, 조선사, 회계 및 부기, 통계학, 조선문학, 조선어학, 신문학, 토지측량, 기상학, 천문학, 광산학
김책공업대학	측량학, 수문지질학, 내연기관, 재료역학, 기계제작, 수역학, 전기설비, 철도건설, 기계공학, 경제학, 전기공학경제, 무선전신
함흥화학공업대학	전기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재료화학제조, 약학, 화학기계, 음식제조공업
건축공업대학	교량, 건축역학, 수력건설자료, 水利, 수리사업, 건축구조, 건축작전, 건축설계, 철근콘크리트, 갱도(tunnel)
축산수의대학	사료, 병상해부학, 전염, 닭류, 새류
평양의과대학	몸구조, 생리학, 병상해부학, 진찰생리학, 약학, 법의학, 위생학, 미생물학, 약류, 유기화학
함흥의과대학	생화학, 진찰생리학, 법의학, 신체해부학
평양사범대학	교육학, 심리학, 조선문학교수법, 조선어교수법, 지리교수법, 수학교수법, 물리교수법, 화학교수법
인민경제대학	상업경제, 농업산업의 계획과 조직
원산농업대학	임업제품가공, 농업관리, 수리사업, 농업기구 및 기계, 생화학, 정치경제지 및 측량, 자원, 산림측정 및 건설, 양잠업, 모직

자료 : 교원신문, 평양 1956년 8월 8일, 4면.

3. 研究機關에서의學位

북한 정권은 정권을 잡은 당시는 과학원의 창설에 대하여 별도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과학 문서량을 보아서라도 그러한 연구 기관이 과연 필

요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2편의 박사학위 논문만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과학원의 필요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야 북한 당국은 과학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북한은 1952년 10월 9일에 ‘내각 결정 제 183호’를 발표하고 과학원을 창설하였으며, 그해 11월 5일에 과학원의 첫 회의를 열고 과학원 내의 각 연구 기관장과 과학원의 상임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과학원은 조직을 완료한 후 1952년 12월 1일에 발족하게 되었다.

과학원의 목적은 내각 결정에 명시되었는데, 첫째는 북한의 응용 과학과 이론 과학의 전진을 돕고 인간의 과학적 견해를 향상·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자주적이며 번창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과학의 열매를 체계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인민의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내각 결정은 과학원 안에 3개의 연구 분야를 설치하고

〈표 2〉 1957~1958 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 북한의 연구 기관 ()는 학생 수

연구원	전 문 분 야
물리 및 수학 연구실	실험물리(1) 원자물리(1) 역학(2) 수학(1)
화학 연구실	연료화학(1) 무기화학(1) 유기화학(1) 고등분자화학(2)
생물학 연구실	포유동물학(1) 곤충학(1) 생물생리학(1) 생화학(1)
의학 및 약학 연구실	동물생리학(1) 약품가공(1) 약학(1) 제약화학(1) 약품가공화학(1)
공학 연구실	석탄광산(1) 금속학(1) 강철가공(1) 내연기관(1) 공학기계(1) 전기기계(1) 라디오공학(1)
경제법률연구원	인민경제계획(1) 산업경제(1) 농업경제(1) 남조선경제(1) 화폐 및 신용(1) 국제사법(1) 형법(1)
역사 연구원	유물사관(1) 철학역사(1) 고대 및 중세기역사(1) 근대 및 최근세역사(1)

자료 : 교원신문, 평양 1959년 8월 21일, 4면.

정규위원, 후보위원 및 연구원을 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과학원은 1954년 6월 현재 9개의 연구원과 43개의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43개의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연구원의 수는 알 수 없으나, 학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연구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실험실에 두 사람 이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앞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원이 1957~1958년도 연구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 35개의 연구 분야에 37명의 연구원을 입학시킬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과학원은 1952년 창설 이후 여러번의 변화를 거치는데 1954년 6월 현재에는 과학원 안에 3개의 분과, 즉 사회과학 분과, 농학 및 의학 분과, 자연 및 기술 분과였다. 사회과학 분과는 역사 분야 5개, 문화 분야 4개, 언어 분야에 4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농학 및 의학 분과는 18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농학 분야는 10개, 의학 분야에 8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자연과학 및 기술 분과는 20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물리와 수학 분야 4개, 화학 분야 9개, 공학 분야에 7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1956년 2월에 과학원의 일부인 농학연구소가 재편성되어 농과학연구소로 승격되었다. 농과학연구소는 다시 '내각 결정 제 78호'에 의하여 1958년 8월 18일에 농과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위원회는 '내각 준비 제 505호'에 의하여 1963년 8월 7일에 농학과학원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의학연구소는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1958년 6월 16일에 독립된 기관이 되었고, 다시 '내각 결정 제 73호'에 준하여 1963년 11월 5일에 의학과학원으로 승격되었다. 1967년에는 과학원 외에 건축과학위원회 임산 과학연구소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북한 당국은 필요에 따라서 경공업과학연구소 및 금속재료과학연구소 등을 창설하여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4. 結 語

현재 북한 당국은 연구 기관의 종류, 연구원

수, 연구 내용 자체를 국가의 비밀로 간주하여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 및 기술 역량과 규모를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북한 당국이 발간하는 「화학공업」이라는 학술 잡지라든가 과학원이 출판하는 학술지에 발표되는 학술 논문은 서방 세계에 발표되는 학술 논문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역사라든가 사회학 분야의 연구 논문은 실험적 근거에 의한 논문을 전혀 볼 수 없으며 거의 전부가 주체 사상에 입각한 논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논문들이다. 물론 학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 학자들이 실험적 자료를 가지고 사회를 비판한다든가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北韓의 大學敎育을 소개하는 연재를 끝마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한의 고등교육은 계속하여 북한의 이데올로기 체제에 의한 제약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학술의 기본 방향은 전문성보다는 政治性이 우선할 것이다.

둘째로 정치성을 전문성보다 더 중요시하는 북한의 고등교육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의 과학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등교육이 대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을 겪고 난 후 지금 얼마나 세계의 과학에서 뒤떨어져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퇴진성 및 낙후성이 곧 북한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북한을 개방 사회로 이끄는 큰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로 과학과 기술의 낙후성은 곧 북한의 산업 및 경제 발달에 큰 타격을 계속하여 줄 것이며,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 결여된 현대 산업 체제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낙오를 면치 못할 것이다.

南·北의 和解를 바라보면서 남·북이 상호 협조하여야 할 부면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북한의 산업 체제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은 이 현대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협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